

보국전기공업(주)

국내유수의 중전기 메이커



국내 유수의 중전기 메이커 寶國電機工業株式會社(대표이사 郭鍾寶)의 주요 생산품은 발전기(육상용 발전기·선박용 발전기·중/저속 발전기·가스터빈 발전기), 수배전반 및 발전기용 운전반 등, 그리고 UPS, 위성레이더와 미군용 통신장비 및 고성능 장갑차 재생부문이다.

보국전기는 우리나라가 야심찬 경제개발계획사업을 펼치게 된 60년대 초인 1961년, 지금의 사주인 광종보 사장에 의하여 창업된 寶國電工社가 그 모태.

보국전기는 창업 이래 30여년 동안 중소기업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여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터전을 이룩하게 된 셈이다.

◎ 제1·2·3·4 공장에 최첨단 시설 …… 고효율 발전기 생산 및 설계

보국전기는 대구 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동에 위치한 넓다란 부지에 제1공장(중·대형 발전기 제조), 제2공장(소형 발전기 제조 및 장갑차 재생시설)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에 제3공장(주한 미군용 통신장비 정비/재생, 수배전반, UPS제조), 제4공장(MCS판 패널제작)을 건설하여 최신첨단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관련 선진기술도입분야에도 힘써 고효율발전기 및 저압 발전기 설계·제조기술(6600V급 고압코일 절연 연구성 관련 기술외 5종)을 비롯해 자동제어반 및 중전기 제조, 발전기생산 및 설계, 가스터빈 발전기분야의 첨단기술 등을 일본과 유럽의 선진 메이커들과 기술 제휴, 자체 기술력 축적을 도모해 온 것이다.

보국전기는 그 전신인 보국전공사가 1984년초 과학기술처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그해 12월 보국전기공업株式會社로 법인화되면서 그 다음해에 '정부기계공업업체'로 등록되게 되고 '88년엔 '품질관리등급업체'로까지 지정받게 된다.

그리고 그해 '보국전기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과학기술처로부터 공인연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또 한국전기통신공사 품질인증획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국방부 조달본부 등록자격과 KCA등록(미군장비수리업무 자격등록 및 업무수행)까지 성취되었다.

업체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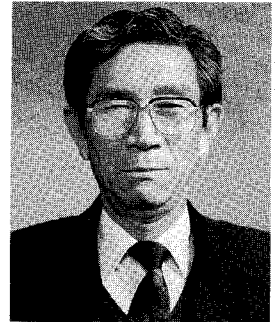
90년대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창의적인 노력과 업적 등으로 「91년 무역의날 수출탑」과 「92년 보람의 일터상」 등 대통령의 훈·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 『새마음, 새기술, 세계획』 경영 방침으로 사세 신장 박차

이 회사의 사훈은 근면·성실·협동·단결·창의창조이며 색다른 것은 그 경영방침으로서 ▲ 새마음(NEW MIND)-새바람, 새로운 전개, 노사협회의 정착화 ▲ 새기술(NEW TECH)-고부가가치제품개발, 신기술 창조 ▲ 세계획(NEW PLAN)-ISO 인증, 경영체질개선 등이다.

보국전기는 이러한 사세신장과 고급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업체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내륙의 전원이 미치지 못했던 추도, 대물도, 비안도 등의 3개 도서 발전소를 독점적으로 수주하여 전공정을 완벽하게 준공, 도서주민들로부터 '광명의 사도'라고 칭송을 받는데 이어 '94년에는 백령도 자가발전소(1500kW, 6600V, 720rpm)를 수주하여 건설중에 있다. 이 국내 최대규모의 도서 내연발전소 기자재 입찰 때는 현대, 쌍용 등 재벌기업들을 경쟁에서 물리침으로써 그 제조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국전기는 고급기술 인력과 첨단설비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제품을 자랑한다. 이는 과감한 기술개발투자와 함께 고급두뇌와 기능인력을 중시하는 경영방침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회전기 기개발 및 제조분야에서는 보국전기의 30여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독보적인 지위를 국내외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또 비상전원용 발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전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설계부터 제조·설치·시운전까지 전체공정에 고도의 기술력을 기울여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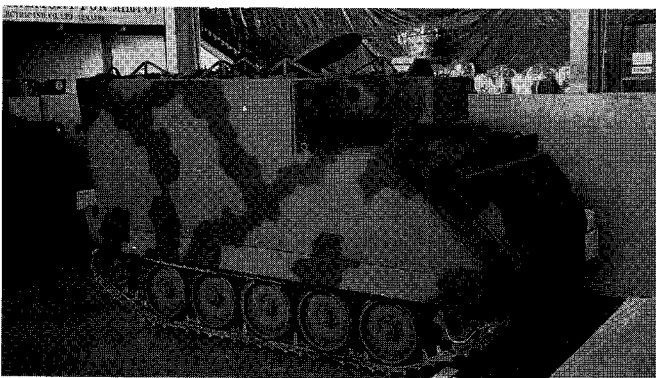
대표이사 **곽 종 보**

특히 보국발전기는 원동기의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마모성 및 윤활유 소모가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스템의 이상발생시 자가점검, 대처기능으로 최고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종 산업설비의 전압배선시스템과 상하수도 동력설비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보국전기의 수배전반은 구조가 견고하고 설치공간을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고압반의 경우는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력설비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국전기의 비상발전시스템은 연

소가스의 팽창을 직접 회전력으로 변화시키는 터빈과 시스템의 단순함으로 99.3%의 회전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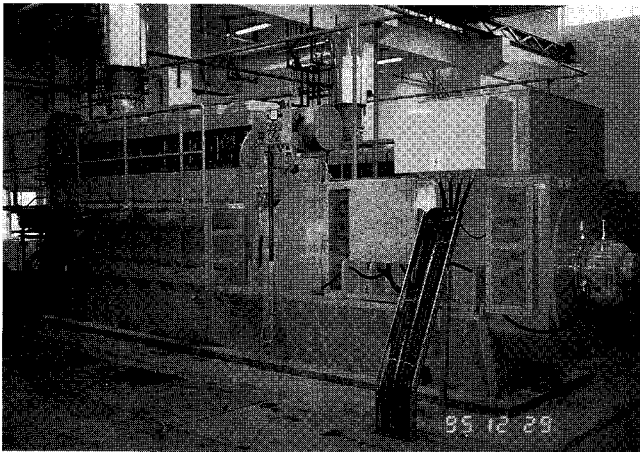


▲ 최첨단 통신전자장비를 갖춘 재생산 수목양용 장갑차

◎ ‘고객 제1주의’로 성실한 기업경영, 지역사회 발전에도 앞장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보국전기가 갖추고 있는 첨단설비와 기술력으로서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미군의 고성능 수륙양용장갑차를 재생하는 전과정에서 완전분해하여 고성능의 신엔진을 장착하여 기능을 배가시키고 최첨단 통신장비까지 갖추어 국내외에 명성을 떨쳤다는 점이다.

한편 보국전기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난공불락이던 일본발전기 시장을 공략, 91년부터 연간 1천여대를 수출하여 150여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기 시작, 이제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출시장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 백령도 디젤발전소의 변전실

곽중보사장은 옛 경북 달성군 현풍면 대동리가 고향으로 이른바 현풍 곱씨의 본관이 이기도 하다. 통상 그 시조가 되는 포산군(苞山君)의 봉호를 소중히 여겨 포산곽씨라고도 이른다.

보국전기가 자리하고 있는 구지면 논공단지 초입에는 ‘곽씨 12선여각’이 고색창연한 모습으로 충·효·열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가의 후손인 곽사장의 어린시절은 “서당교육”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세가 기울면서 현대의 정규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치는 불행에 부딪친다.

그러나 향학의 일념에서 어린나이에 전기기 기분야의 현업에 뛰어들어 ‘자기입신의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너무 현장의 실습에 집착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는 불행을 겪는다.

그러나 곽중보 청년은 그 실명을 극복하고 현장기술 현장실습에 계속 도전하여 전기기기 기술을 축적하는 집념을 불태우게 된다. 곽중보 사장은 말한다. “때를 못타고 나 선대의 물려받은 음은 없었더라도, 한 고장에 곽씨의 터전을 이룩하여 연연히 가문을 일구어 온 선인들의 명성을 보존선양하고 후대들을 위해서는 내한몸 바쳐야한다는 단심(丹心)으로 기어코 입신해야 하는 소명감같은 것이 생기더라”는 것이다.



▲ 백령도 디젤발전소에 설치된 발전기

물론 20대 약관의 곽중보사장이 거의 무학(無學)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자성의 의지 하나만으로 보국전공사를 설립하고,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 보국전기공업주식회사라는 법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그는 수다한 역경

업체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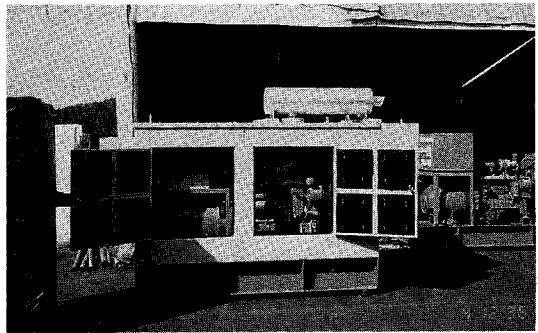
에 부딪혀 좌절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광종보사장은 4전5기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광종보사장. 그는 그의 회사가 고난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회 사원들의 공동체 의식과 회사공신력에 대한 대의 신뢰도라고 했다. 보국전기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객제1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성실을 다하여 보답하는 기업 경영의 모토를 지켰다는 것이다.

광종보 사장은 바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관련 협단체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앞장서 각계로부터의 감사패, 표창장 등이 회사에 가득할 정도다.

보국전기의 광종보사장은 “무엇보다도 내고향에 보국전기의 공장설비를 크게 갖추어 내고장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보람”이라며 “우리나라 전기산업진작을 위해 젊음을 불사르고 일생을 바친 것이 헛되지 않고 국가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가 1961년 대구시 북구 점산동에서 보국전공사를 시작할 당시만해도 6.25동란으로 전국도가 폐허화되고 공동화된 시기였다. 그나마 대구를 비롯한 영남지역 일부는 진



▲ 방음형 발전기

화를 면하게 되었으나 일제때부터 경공업의 중심지였던 탓에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난, 자재난이 겹쳐 통화팽창의 악순환이 생겨 모든 생산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휴전후에 그 회복세가 빨라 경공업과 섬유산업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서 공장가동의 원동력인 전동기의 수요가 크게 요구되었지만, 철판·강판·동선 등 원자재의 부족이 심각하여 주로 폐품화된 미군용 물자의 재생·재활용이 유일한 활로였는데, 그것조차 절대량이 부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무렵 광종보사장은 천부적인 근면성과 집념으로 자재확보를 한발 앞서뛰고, 판로개척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팀의 기술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인적 사시를 통해 자신의 기술소양을 제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국의 계기용 전동기는 날개 돋힌듯 팔리게 되어 사세는 날로 신장하게 되는데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적극화됨에 따라 성장일로를 걷게 된 것이다.

어린 이순을 넘기게 된 광종보 사장의 소년시절부터의 남달랐던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는 이웃들의 칭송을 모았었다. 그는 고용살이하는 시절에도 고향의 농사짓는 부모의 가계를 보살피고 만형의 입장에서 아우들의 학업을 뒷바라지 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의 창업까지 뒷받침하여 오늘날은 3형제 모두가 한결같이 전기기기제조 분야에 입신토록 했다. 큰아우 광종영은 대구에서 엘리베이터 도어와 모터 등을 제조하는 보광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 아우 광종승은 인천에서 소형 모터 전문메이커인 동영전기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